

## 구치소 체험기

/ 우람 알바노조 정책팀장

2016년 9월 2일 금요일, 나는 재판 불출석이라는 이유로 구속됐다. 작년 세월호 투쟁 때 일반교통방해로 기소되었는데, 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재판부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이 지면을 빌려 굳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를 변명하자면, 진혀 몰랐다.

나는 아침에 집을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 생활을 한다. 법원은 등기로만 우편을 보내니 애초에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첫 재판은 그대로 날렸다. 재판이 있었다는 것도 법원에서 연락이 와 ‘오늘이 재판인데 올 것이냐’ 물어서 알게 되었다. 일정이 있어서 못 간다고 했다. 그날은 알바노조의 단식 첫 날이었다. 그럼 다음에 기일

을 잡을 테니 그땐 꼭 출석하라는 말을 남기고 법원 직원은 전화를 끊었다. 그 통화 다음 날, 난 단식에 돌입했다. 그렇게 투쟁하며 재판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검사에게 다른 용건으로 연락이 와 통화하던 중, 재판이 내년으로 연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땐 그냥 ‘엄청 멀게 잡았구나’라고만 생각했다. 그렇게 재판은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 그렇게 지내다 국회 앞 단식농성 건으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조사 막바지에 경찰이 나에게 구속영장을 들이민 것이다.

처음에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분명 법원이랑 통화도 했고 재판 기일도 잡혔다고 들었는데 갑자기 웬 구속영장이냐고 경찰에게 따졌다. 경찰은 자기들도 잘 모른다고 하며 아마 서약서 같은 것을 쓰면 금방 풀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에 일단 이러한 사실을 알려면서도 내심 그 말을 믿었던 것 같다.

그래서 서약서를 쓰러 갔더니 웬 걸. 씨알도 안 먹히는 것이다. 8시쯤 호송차가 올 테니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을 듣고 그때야 시급하게 막 주변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거기서 이미 한 번 더 재판 기일이 지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7월 8일에 이미 재판 날짜가 잡혔었던 것이다. 난 그날 아무것도 모르고 단식을 마치고 병원에 입원했었고, 그렇게 두 번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은 중요한 것이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재판 받을 일이 생긴다면 절대 귀찮다고 빼먹지 말고 꼬박꼬박 출석하기

바란다. 이렇게 구속되면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보상도 못 받는다.

그렇게해서 구치소라는 곳에 난생 처음 가 보게 되었다. 수갑 차고 호송차를 타고 인천구치소로 갔는데, 하던 일들에 대한 걱정이 좀 되었지만 생각보다는 담담했다.

신입대기실이라는 곳에 가서 입소 수속(?)을 밟게 된다. 철창을 너덧 개 통과했는데, 그 길을 걸어가면서 구치소가 진짜 감옥이라는 것을 실감했다. 입소 수속은 별 건 없다. 신원 확인하고, 소지품 압류(?)하고, 수인복(거기서는 '관복'이라고 부른다)으로 갈아입는 것이 전부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검신을 하는데, 꽤나 치욕적이다. 알몸 상태에서 검신을 하고 항문까지 검사한다. 예전에 항문 검사 이야기는 들은 바가 있어 들어가며 가장 신경이 쓰였는데, 기계로 할 줄은 생각도 못했다. 발판 위에 올라가서 쭈그리면 렌즈가 밑에서 확인하는 구조다. 끝나고 나서야 그게 항문 검사라는 것을 알았다. 얼떨결에 화도 못냈다.

교도관들의 태도는 굉장히 재밌다. 오랜만에 고등학교를 떠올릴 수 있는 경험이었다. 다리 꼬지 말라고 명령하고, 대학교 이름을 묻기에 꼭 말해야 하냐고 했더니 그렇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지장을 찍는데 일어서서 찍으라고 하기도 했다. 마치 학창 시절 왜 있는지 모를 규칙들을 다시 경험하는 듯한 기분이었다. (굉장히 기분이 나빴지만 괜히 싸웠다가 트러블이 생길까 봐 참았다. 이런 식으로 이러한 규제가 자연스레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 이런 식의 규제는 이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일상적으로 적용된다.

어쨌든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신입방에 들어갔다. 처음 들어온 사람들은 신입방에 집어넣고, 나중에 사동을 옮기는 시스템이다. 방을 보고 한국의 재소자 인권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들었다. 고시텔 2~3개 정도 크기의 방에 15명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처음에는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게다가 마침 일과가 끝나 잘 준비를 하고 있어 누워 있는 사람도 있고, 이래저래 굉장히 답답한 방이었다. 일단 어찌어찌 들어갔는데 역시나 누울 공간도 마땅치가 않았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 발에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첫날은 굉장히 불편하게 잤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문에서 제일 가까운 쪽에 누운 사람만 혼자 자리를 편하게 쓰는 것이 아닌가. 말하는 거나 방의 분위기를 보아 그 사람이 서열 1위인 게 너무도 분명해 보였다. 듣긴 했지만 실제로 서열이 나뉘어 있는 모습을 보니 신기했다.

또 신기했던 건 문신한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다. 문신도 흔히 보는 조그만 글귀 문신이 아니라 색깔 들어가고 상반신 그득그득 들어찬 용 문신! 구치소에서 봤던 사람의 절반 이상이 문신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만큼 신기한 세상이었다. 물어보진 않았지만 대충 주위들기로는 죄목도 마약, 절도, 사기, 폭행, 성폭력 등 다양했다. 인천 구치소에 재소자가 모두 대략 2,200명 정도 있다고 하던데 세상에 이렇게 많은 범범죄자가 있다는 것에 또 놀랐다. (물론 정말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 구치소가 인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도소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범범죄자가 있을 텐데……. 우리 같은 좌파가 만나기 힘든 다양한 사람이 세상엔 정말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하룻밤을 보내고, 맛있는 아침을 먹은 후, 주임과 면담을 하게 되었다. 신입들은 다 한 번씩은 하는 절차란다. 가서 별 이야기는 안 했다.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좋은 경험이라 생각하고 잘 지내다 나가라는 등의 이야기 정도. 그리고 나서 바로 독방으로 옮겨 줬다. 구치소 앞에서 기자회견 한 사람들이 신청해 줘서 그렇게 된 것 같긴 한데, 예고 없이 옮겨서 당황했다. 심지어 방에서 짐 챙기고 나올 때까지도 어디 가는지도 안 알려줬다. 어쨌든 그렇게 혼거방에서의 짧은 하룻밤을 보내고 바로 독거방으로 이동해서 나름 쾌적한 감방 생활을 보낼 수 있었다.

여기서 잠깐. 경험이 없는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치소의 일과를 설명하고 글을 이어 나가려 한다. 일과는 아침 6시 기상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30분 정도 지나 '점검'이라는 것을 한다. 이 점검은 하루 세 번 하는데 점호랑 같은 거라고 이해하면 된다. 복장을 단정히 갖추고 앉아 교도관의 순시를 기다리는 것이다. 점검이 끝나면 7시에 아침밥을 먹는다. 그리고 또 8시에 점검을 한 번 더 진행한다. 그리고 나서 11시에 점심을 준다. 대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각 방별로 돌아가며 운동을 시켜 준다. 일요일엔 운동이 없다. 그리고 4시에 다시 점검을 한다. 그리고 5시에 저녁을 준다. 그리고 9시에 취침 시간이라며 전등을 하나 꺼 준다(전등은 2개다). 그럼 하루가 끝난다.

첫 주말은 정말 괴로웠다. 주말 내내 할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독방은 대략 1.2m×3m 정도 되는 공간이다. 한 평 정도다. 전에 썼던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 유용한 무언가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처음 들어갔던 독방은 모포 두 장, 빨장고 납작한 고무 바가지, 수건 한 장을 제외하면 아무 것도 없었다. 아, 『월간 조선』 6월호가 있었다. 아마 애마저 없었으면 아마 두 배는 괴로웠을 거다. 밖에서 물품을 넣어 주면 들어오지만, 2~3일 정도 걸린다고 한다. 주말은 예외다. 그런데 하필 그날이 토요일이라 주말 내내 책은 구경도 못했다. 게다가 원래 독방에 TV가 한 대씩 있는데 하필 내가 들어간 방에만 TV가 없었다. 처음에는 원래 없는 건가라는 생각도 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복도에 틀어 놓나 보다'라고 생각했다. 방을 옮기고서야 그 방이 특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도저히 할 게 없어서 『월간 조선』을 두세 번 읽었던 것 같다. 나중엔 그것도 질려서 잠만 잤다. 그렇게 지나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얼마나 끔찍했던지 흔거방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사람을 고문하고 싶으면 아무 것도 없는 방에 묶어 놓은 채로 1년만 가둬 놓으면 된다. 세상 그 어떤 고문보다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무료한 주말을 보내고 월요일 아침이 되자마자 다시 방을 옮겼다. 역시 독방이었는데 TV가 있었다. 또 옮기자마자 다른 주임과 면담을 했다. 내용은 역시 별 거 없었지만, 토요일 기자회견을 언급하면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라는 투로 이야기했던 걸 보니 약간 긴장했던 것 같다. 그 덕에 원래 구매 날짜에만 살 수 있는 펜이랑 종이, 기타 등등을 바로 받아서 가져가는 특혜를 보기도 했다. 면담을 끝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이 넣어 준 책과 물품

들이 들어와 드디어 진짜 구치소 life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책이 그렇게 재밌던 적이 없었던 것 같다. 가장 먼저 『감시와 처벌』을 읽었는데 정말 공감 많이 되었다. 읽다 보면 쓸데없고 사소한 규율들이 왜 있는지 이해가 된다. 그 외에도 이것저것 많이 읽었다. 대략 계산해 보면 하루에 한 권 꼴로 읽은 것 같다. 그런 점에서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TV도 많이 봤다. 기본적으로 구치소의 TV는 (교도소도 마찬가지로 지겠지만) 녹화방송이다. 몇 달 전 방송을 녹화해서 편집한 후 틀어 준다. 아침 9:30~11:00, 오후 1:30~4:00, 오후 5:30~9:00 이렇게 세 번 틀어 준다. 그마저도 채널이 세 개밖에 안 되고(하나는 EBS 강의채널이라 사실상 두 개), 다른 채널에서 같은 방송이 나오는 경우도 많기에 선택권이라곤 거의 없다. 유일한 본방송은 KBS 7시 뉴스다. 이걸로 바깥소식을 접할 수 있다. 그 안에서는 그마저도 재밌다. 정말 열심히 봤다. 드라마도 괜찮지만 다큐/교양 프로그램들이 유익했다.

재소자들이 가장 고대하는 시간은 운동시간이다. 유일하게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밖이라고 해 봐야 진짜 바깥도 아니고 운동장에 아무 것도 없지만 그마저도 소중한데. 운동은 기본 시간은 30분이고, 방보다 조금 더 큰 공간에 자유롭게 풀어 준다. (인천구치소는 아니었지만 운동장으로 나가는 데도 있다고 한다.) 기구란 당연히 없고, 겨우 바닥에 매트가 깔려있을 뿐이라 맨손운동 이외의 운동은 하기 힘들다. 사람들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잠깐 밖에 나와서 기분 전환을 하는 느낌이다. 독방 사람들은 한꺼번에

운동을 하는데, 그중 대장 노릇하는 아저씨가 계속해서 사람들을 깔보고 훈계하는 태도여서 기분이 나빠서 나는 점점 안 나가게 되었다.

내가 가장 기다렸던 건 면회(거기서는 ‘접견’이라고 표현한다)다. 정말로 면회 온 날과 면회 안 온 날은 기분이 완전히 다르다. 예약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기 때문에, 면회 예약이 없는 날엔 아침부터 앉아서 면회를 언제 누가 올까를 계속해서 생각한다. 1, 2시가 넘어갈 때쯤부터는 불안해지고, 그러다 3시쯤 되면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4시가 넘어가면 실망감에 우울해진다. 애초에 얼마 안 있을 거라고 알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긴 하다. 예약 접견이 아니라면 7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정말 빨리 간다. 그나마도 좋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도 누가 며칠에 면회를 왔는지 다 기억하고 있다. 주변에 감옥 간 사람이 있다면 면회는 꼭 가길 바란다. 면회는 정말 중요한 것이다.

편지도 좋다. 편지에 별 내용이 없어도 괜찮다. 안에서 편지를 꽤 많이 받았는데 보내 준 사람 한 명 한 명이 참 고맙더라. 다만 서신을 주고받는 데에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월요일에 써서 화요일에 보낸 편지가 다음 주가 돼서야 도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당황했다. 답장 쓸 때 시기가 다 지난 이야기가 되어 버릴까 봐 고민도 많이 했다. 생각보다 일찍 나와서 써 놓고 못 준 편지들도 있다.

물론 10일 정도밖에 안 살았지만 감옥은 별다른 자극이 없는 곳이다. 일과도 딱딱 정해져 있고, 따로 할 것도 없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비슷해진다. 내가 독방에 살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다. 오래 있



으면 또 다르겠지만, 내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힘들진 않지만 그렇게 편하지도 않았던 곳이었다.

아, 밥은 정말 맛없다. 식사시간이 제일 곤욕이었다. 그래서 그냥 저냥 지내다가, 나오는 날까지도 추석 전에 못 나오겠다는 마음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교도관이 문을 열더니 바로 출소해야 하니 나오라고 말해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난다. 그렇게 나가면서도 별로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가 생각보다 기쁘거나 감격스럽거나 그렇지 않고, 들어갈 때처럼 나갈 때도 꽤 덤덤하고 자연스러웠다. 지금은 추석 전에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이다.

이제 할 얘기는 거의 다 끝난 것 같다. 좋은 경험이었다고 말할 순 없고, 몇 년씩 징역을 살았던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도 모르겠지만, 한 번쯤은 해 봐도 괜찮은 경험인 것 같다. 짧게라면!

나의 경우는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애정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평소에 세상 혼자 사는 것처럼 행동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생활하다 보니 답답하고 우울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 밖에 사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고, 세상 사는 건 다들 비슷하다는 것도 느낄 수도 있었다.

너무 거부감을 느끼거나 무서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안 가 보셨다면 한 번쯤 가 보시길! **【조교】**